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17년 11월 제 77호



발행처: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이영범

편집인: 김태진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교수연구동(10동) 307호

전 화: 043-229-8395 **팩 스:** 043-229-8023

계좌번호: 국민은행 918001-01-379858 / **예금주:** 김태진(한국노어노문학회)

Homepage: <http://www.karll.or.kr>

대표 이메일: karll21@hanmail.net / **논문투고 이메일:** karll_edit@hanmail.net



КОПРЯЛ

차례

권두언	3
회원논단	5
신간안내	7
회원동정	8
학회지 발간 안내	9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10
회비납부 현황	15

권두언



러시아 연구자의 현실과 의무

정세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한 국노어노문학회 뉴스레터의 <권두언>에 대한 글을 청탁받고 한동안 무엇을 쓸까 매우 고민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DBpia에 선생님의 논문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송된 메일이 생각났다. 국내 저널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중에서 약 1/2 정도가 DB pia에 수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논문에 대한 이용수와 피인용지수를 보고 놀랐다. 나의 논문에 대한 피인용지수가 매우 낮았던 것이다. 그동안 이에 대해 신경을 쓴 적이 없었지만, 피인용지수를 보고 심지어 이 지수가 제대로 조사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만약 이 지수가 정확한 것이라면, 매우 부끄럽게도 필자의 논문은 인용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좀 더 후하게 생각해서, 필자의 논문 주제가 광범위한 학술적 논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DB pia에는 이외에도 각각의 논문에 대한 이용자 수(논문 다운로드 수)가 표기되어 있었다. 필자의 논문 이용수를 예로 든다면, 2017년 3월에 게재된 특정 논문이 13회로 가장 낮고 2009년의 특정 논문 이용수는 407회로 가장 많았다. 필자의 논문에 관해서는 짐작하건대, 러시아 및 유라시아와 관련된 연구자, 전공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최고로 활용된 이용수라 하더라도 특정 논문에 대해 연평균 50회 정도에 그쳤다. 최근에는 국내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학생들은 대학 도서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의 논문 자체가 많은 이에게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다가 어떤 교수가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연구자가 저널에 게재한 논문을 읽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할 수 있다. 저널지 심사위원 3명만이 읽는다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씀하시던.

본인이 개인적인 부분을 예로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나는 82학번이고 당시에는 어려서 논문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당시 러시아 저서 수는 적었지만, 러시아 연구 1세대의 엄청난 노력으로 러시아문학에 관련된 번역서가 많아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기 전 겨울에 러시아 소설을 읽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러시아를 이해하고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 들어 나의 학번 위 선배들이 러시아 저서를 많이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필자에게는 그러한 책이 경외 그 자체였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라고나 할까. 어찌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인 21세기에 들어가서야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던 계기도 그런 저서의 지적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러시아학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있으며, 현재 많은 저서와 논문이 저서로 출간되거나 저널에 게재되고 있다. 이



제 러시아 뿐 만 아니라 연구 범위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로 확대된 추세이다. 본인도 학위 받은 이후로 지난 12년간 수십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단독저서도 2권을 출간하였다. 바보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나는 러시아에 관련된 다른 분들의 저서와 논문을 보면, 여전히 감탄하고 있다. 나 자신이 학문적으로 역량이 매우 부족하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서와 논문을 읽으면, 매우 뛰어난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 나는 러시아와 관련된 선생님들을 여전히 존경의 념(念)으로 바라본다. 삶에 쫓겨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자아비판을 해본다면, 필자는 연구자들의 노고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결과물을 정독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해 겨울, 1982-1983년, 러시아 문학 번역 책을 읽으면서 러시아라는 글귀가 영원히 가슴에 낙인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주홍글씨처럼 러시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전히 꿈결처럼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1990년대 후반, 몇 십 년의 역사를 앞당겨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홍콩 르느아르 영화인 <중경삼림>을 매우 좋아했었다. 이런 비교를 해서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멋진 영화처럼, 동료 제현(諸賢)들의 훌륭한 저서와 논문이 많이 출간되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열심히 읽는 넓은 학문적 아량과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회원논단

한-러 문화예술 교류, 30주년을 맞이하다.



신혜조 성균관대학교

얼마 전 10월 24일, 한-러 문화예술 교류 30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문화예술협회와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저명한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는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 예술 교류사를 조망함과 동시에 향후의 교류가 양국 관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문화예술 교류를 현장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온 한 사람으로서 러시아와 인연을 맺어온 지난 시간들을 섬세하게 되짚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매우 유의미한 자리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러시아는 한-소 수교 이후 경제, 군사, 정치 교류의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장기간 지속되었던 상호 소외와 대립의 시기를 넘어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대국의 정서와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학문적, 종교적, 문화적 교류협력을 강화했는데, 여기에서 문화교류는 양국 관계 회복의 초석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에도 문화교류는 상이한 문화권의 국민들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데 가장 유익한 수단으

로 간주되었던 만큼, 한-소 간의 문화예술교류는 이질적인 문화적 전통을 갖는 양국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통한 양국의 인적, 물질 문화교류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달려있던 사회’가 ‘열린사회’로 개방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이한 인식과 전망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교류를 지속해온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성과가 전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예술분야의 곳곳에서 러시아인들이 구축한 예술적 유산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러시아 예술이 우리 문화예술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바람직한 한-러 문화교류를 위한 향후 과제로 주로 지적되었던 부분은, 최근 들어 우리 문화예술계의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러 문화 교류의 양상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용적 태도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 알고 있는 지

식의 양에 비해, 러시아 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협소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규형 전 주한러시아대사는 기초연설을 통해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미미함을 지적했다.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1%만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을 했고, 30%는 약간 알고 있다는 수준 그쳤다고 한다. 또한 그 외 응답자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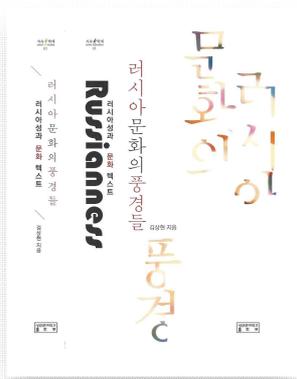
사실 지금껏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개된 문화예술 교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오는 양상을 보여 왔다.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과 수요, 그리고 러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수요 사이에는 분명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교류 현상은 불과 몇 십 년 전까지 문화예술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상황과 줄곧 세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예술사적 위치를 감안해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30년 전, 러시아의 예술을 습득하는 일이 러시아 예술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였다면, 습득된 기량을 통해 우리의 것을 역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과 시도는 균형적 문화교류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국제 스타들을 배출해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날, '한국'이라는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형상화해 나가는 길, 그리고 균형적 교류를 위해 우리 문화를 러시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려는 노력이 러시아학 연구자로서 필요한 사명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 예술이 수많은 유럽 전문가들을 영입해 '러시아화'하며 세계 예술사를 새로이 써나갔듯이, 한국 문화예술계도 러시아와의 긴밀한 교류관계 속에서 '한국화'된 문화예술을 창조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곧 다가올

미래에는 세계 예술사에서 주요 문화예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КОПРЯ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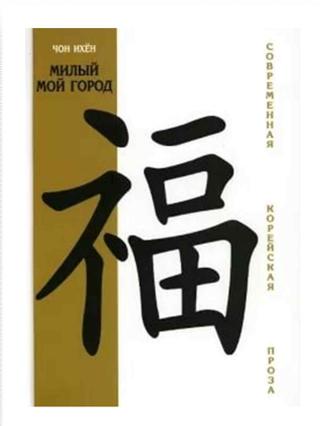
신간안내



- ▷ 러시아 문화의 풍경들
저자: 김상현(성균관대) / 성균관대학교출판사 / 2017년



- ▷ 레닌묘: 상징의 건축, 기억의 정치
저자: 김상현(성균관대) / 민속원 / 2017년



- ▷ 달콤한 나의 도시
저자: 정이현 / 역자: 승주연, A. Гуделева / 나탈리스 / 2017년



회원동정

2017년 10월 1일부로 조규연 박사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학회지 발간안내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3월 30일과 6월 30일에 각각 발행되며 제3호와 제4호는 9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제27권 제3호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8월 15일까지 게재하실 논문을 첨부하여 karll_edit@hanmail.net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Jams System 투고 의무 사항)

(학회지 논문 투고요령 참조)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재 신청 논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게재 신청 시 반드시 연회비와 심사료를 학회구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논문은 20만원, 지원이 없는 논문은 1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은 연구비 지원 논문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경우 전임으로, 학진 지원 연구교수, 학진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 · 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 권 문학
2. 종류: 상기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서평 요령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학술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재단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학술연구재단 제출용으로 상기 요구 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작성요령

5.0 논문제목 :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 정렬로 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책임연구자)를 저자명 중에서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 초기 화면대로



5.4 글자간격 : 초기 화면대로

5.5 글꼴 :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 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5.6. 그 외 주요 사항-1:

- 러시아 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 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 인용 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 색 강조 하지 않음)
- 논문 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챕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고딕체)
- 챕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말’ 혹은 ‘나가는 말’ 등의 다른 기타 표현을 하지 않음
- 챕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그 외 주요 사항-2: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칸씩 띄운다.

5.7 각주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루이스 면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김종대, *op cit.*, p. 29.

Ibid., p. 87.

David Dordwell, *op cit.*, p. 3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Там же. сс. 99-100.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D. N. Shalin(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김학준, *op cit.*, p. 209.

Ibid., p. 208.

Irina Reyfman, op cit., p. 78.

Ibid.,

D. N. Shalin(ed), op cit., p. 10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 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озрения.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Kotkin,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7. 제출형식 : ‘아래아 한글’ 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8. 제출마감일 :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9. 제출처 : karll_edit@hanmail.net

10. 게재료규정 : 대학의 전임 및 이에 준하는 회원이 연구비지원을 받았으면 20만원, 그렇지



지 않으면 10만원, 비전임 회원이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면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을 학회구좌에 납입한다.

(*논문제출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와 논문게재료, 심사료(3만원)를 학회구좌에 납입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11. 배포방식 : 비매

나.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판정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구좌에 입금. 논문통과 후 논문게재료를 학회구좌에 입금.

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명단

고 일, 곽태석, 권철근, 강덕수, 강명수, 강흥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호, 김원한,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정막래, 정보라,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 강수경(1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연회비(5만원) 명단 : 조혜경, 장 디아나, 조준래, 박선영, 황서경, 김주연, 박미정, 심지은, 기계형, 남혜현, 김보라, 김상현B, 이주만, 임혜영, 한현희, 박영은, 안숙현, 김연경, 정세진, 니나 비노그라도바, 잔나 발로드, 박카밀라, 신혜조, 권정임, 강수경, 전정옥

▶ 기관 회원 명단 : 대전대학교 도서관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는 회원은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을 주십시오.